



<지진희> <장혁> <윤계상> <조인성>

한류스타 '로맨틱가이들' 日 출격

지진희·장혁 등 '페스티벌 2007' 참가

디지털채널 주최로 23일 일본 사이타마현 구릿돌(구인보이스 세이부동)에서 열리는 초대형 한류축제 '한류, 로맨틱 페스티벌 2007'에 참가하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출연진과 스태프가 22일 오전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을 찾는다.

한류스타 지진희·차태현·장혁·윤계상·공유·조인성을 비롯해 인기 그룹 신화의 신혜성·전진·M(이민우)이 가세하며, 김정훈·풍경·배틀·SS501이 모처럼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말 그대로 '로맨틱 한류'의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한류스타 총출동이라는 좀처럼 드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팬들은 물론 후지TV, 니혼TV, TV아사히 등 수많은 일본 매체들이 나리타공항의 열기를 취재하며, 행사 당일 취재석을 3군데나 설치한 구릿돌에서도 무대와 객석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를 보도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진희는 드라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깜찍꼬마로 매직쇼를, 후지TV의 아침 정보프로그램 '메자마시TV' 등에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는 장혁은 액션 퍼포먼스를 준비해 선보인다. 또한 가수에서 연기자 변신에 성공한 윤계상은 모처럼 춤과 노래를 직접 선사하며,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을 지닌 재주꾼 차태현도 가세한다.

■ '국가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김용균 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장

“살아 생전 국군 포로 생사 확인·유해 송환 꼭...”

“양심에 따라 조국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9일 국가보훈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모범국가유공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용균(7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장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세의 나이에 자원입대해 6.25에 참전했던 김지부장은 35세가 되던 해 상사로 전역한 뒤 재향



6.25때 전사한 형님 한 풀려 자원입대

군인회 문평면분회장·문평면 향토예비군 초대 중대장·무공수훈자회 나주시지부장을 맡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

“바로 윗 형님이 1951년에 평안남도 덕천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형님의 한(恨)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애쓰던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리 4형제 중 막내였던 김지부장은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형님과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군인의 길을 가게 됐고, 동부전선 351고지에서

적 1개 중대를 전멸시키는 공을 세워 1953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실세없이 살아지던 포탄과 총알, 곳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전장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운으로 살아남았지만 포탄에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고 '대러가 달라'고 말하던 한 전우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생각과 함께 살아남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이 현재의 그를 만들었다.

“국가가 있어야 내 자신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이 있어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조국발전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력이 다할 때까지 활동하겠습니다”

75세의 고령에도 그는 매일 직접 차를 몰고 아침 일찍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다. 7월에 있을 '제 10회 영·호남 무공수

함께 살아남지 못한 전우들... 가슴 아파

훈자회' 교류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는 1만6천 529㎡ 가량의 농토를 직접 경작하는 농부이기도 하다.

“내 세대가 죽으면 6.25가 이대로 잊혀져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바쁘다. 6.25의 산 증인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6.25와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북에 있는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과 국군포로들의 생사 확인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여생을 살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선엽 예비역 대장 陸士에 1천만원 쾌척



'6·25전쟁의 살아있는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육군사관학교에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21일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백 예비역 대장은 지난 15일 육사를 방문해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생도들을 위해 써달라”며 임흥빈(중앙) 육사교장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백 예비역 대장은 이날 1946년 5월 육사의 모체인 조선경비학교 개교에 앞서 자신이 다녔던 군사영어학교 시절과 육사 태동기 시절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6.25에 즈음해 발전기금을 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측은 “6.25전쟁 당시 백학간두의 위기에서 조국을 지킨 최전선의 지휘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첫 4성 장군이자 참모총장까지 지낸 노(老) 장군의 육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용준 옛 애인 이사강, 영화감독 데뷔

한류스타 배용준의 연이던 이사강(27) 씨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21일 여성조선 7월호에 따르면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이 씨는 최근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영화 '맨발의 기봉이' 제작사인 지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데뷔 영화는 한국 톱스타와 일본 여성과의 사랑을 그린 멜로물로,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영국에서 영화화교를 졸업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광고 제작회사에서 일했으며 첫 번째 단편영화 '스푸트니크'가 2002년 런던영화학교로부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치열한 삶의 의지, 교육 열정으로

여수 상이 1급국가유공자 부부

자녀 교육 성공 스토리 화제

상이 1급 국가 유공자 부부의 자녀 교육 성공 스토리가 화제다.

주인공은 여수 고소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김성영(61)·육애화(56)씨 내외와 희은, 희원, 희광 등 세 아들, 여수에서 초·중·고를 마친 장남 희은(31)씨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과정에 합격했다.

희은씨는 하버드대 졸업과 함께 200대1이 넘는 경쟁을 뚫고 미국 남부 명문 텍사스A/M대 역사학 조교수로 취임하게 됐다.

차남 희원(29)씨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다 지난 2004년 미국 항공건설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워싱턴D.C 본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MBA과정을



지난 7월 미국 하버드대 교정에서 열린 졸업식 행사도중 김성영씨 가족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왼쪽부터 김성영씨, 장남 희은씨, 며느리 순영지씨, 육애화씨, 손씨가 안고 있는 아이가 10개월된 손자 노아군.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던 3남 희광(26)군은 이달 말 공군 장교로 만기 전역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3형제를 훌륭히 키워낸 김씨는 지난 68년 육군 사병으로 복무중 불의의 고압선 감전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원발

을 잃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생활을 끝에 의병제대한 김씨는 옛 여수시청 앞에서 형과 함께 호남사진관을 개업, 생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72년 문화방송은 창사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절망은 없다'의 주인공으로 김씨를 선정, 포기하지 않은 그의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최양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광주·전남 언론학회 회장 취임



최양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신문방송학과)이 21일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6월 20일까지 1년이다.

광주·전남언론학회는 지역 언론학교수와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언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임 회 회장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언론학 학사,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1995년부터 조선대에 재직 중이다.

조선대 신문방송사 주간·국제정소년지원단 감사·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 심사평가위원·한국광고홍보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장

대한태권도協 부회장 선임



조영기(69) 전남태권도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을림파크호텔에서 열린 2007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제2차 전체이사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에 재 선임됐다.

서선호 사회복지개발원장

美 아메리칸주립대 교수로



서선호 한국사회복지개발원장은 최근 미국 아메리칸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내방

▲장봉조씨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장)

'영·호남·제주 농지도자' 5·18 민주묘지 참배



광주농이인협회(회장 최창기) 주최로 열린 '제9회 영·호남 및 제주지역 농지도자대회' 참가자들이 21일 광주시 북구 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농이인협회 제공)

탈러트 명세빈, 띠동갑 변호사와 8월 17일 '백년가약'

탈러트 명세빈(32)이 12살 연상의 변호사 강호성 씨와 8월17일 서울 광장동 세라톤위키텔호텔 비스타홀에서 결혼한다.

명세빈은 21일 “교제 사실이 알려진 후 결혼 날짜를 바로 잡게 됐다. 잘살겠다”며 웃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결혼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교회에서 교우로 지내다가 작년에 성경 관련 서적의 나눔 파트너가 되어 자주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재응 '독남' 두아이 아빠 됐다

미국프로야구 트리플A 더럼 볼스(탬파베이 산하) 소속인 우완 투수 서재응이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서재응은 21일(한국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1일 오전 11시경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고 밝혔다. 큰 딸에 이어 둘째는 아들을 얻은 서재응은 “병원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 너무 가서 보고 싶다”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며 팬 여러분의 성원에 더욱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조인성(전 광주 동부교육청 관리과장)씨 4남 보근군 김복열씨 장녀 혜자양=23일(토) 오전 11시40분 상록회관 웨딩홀 3층 무궁화홀.
- ▲김천주(광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씨 장남 강현군 안동혁씨 장녀 미애양=23일(토) 오후 1시2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 ▲이희일씨 장남 창호군 강민원(광주시 환경자원과장)씨 장녀 지선양=23일(토) 오후 1시 예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 ▲심순택씨 차남 상구(미국 변호사)군 강정재(전남대 총장)·김 명(광주교육대 교수)씨 차녀 승희(미국 코네티컷주 대학병원 의사)양 = 23일(토)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예식장.
- ▲김상현(광주대 스포츠레저학부

교수)씨 장남 형남군 오용택씨 장녀 정민양=23일(토) 오후 1시 유토피아웨딩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

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제철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금) 오후 7시 흥부와 놀부. 373-3688
- ▲유은학원 총동문회 제 2차 정기이사회(회장 박석남)=22일(금) 오후 7시 상록웨딩홀 3층. 361-2680

▲조대부고 20회 동창회 모임=22일(금) 오후 7시 화랑궁 식당. 223-7370

▲재광 목포 제일여고 9회 동창회 모임=22일(금) 오후 6시30분 낙지한마리와 수재비. 011-617-6695

▲광덕고 2회 동창회 총회=23일(토) 오후 6시 예벌루션웨딩홀. 017-601-1190

▲진흥고 제 3회 동창회(회장 조래길) 모임=23일(토) 오후 7시 상록회관 4층. 016-603-6200

▲서강고 제 8회 동창회(회장 김용식) 모임=23일(토) 오후 5시 마스터스관광호텔 3층. 017-617-3985

▲광주 방림초교 총동문회 창립총회=23일(토) 오후 2시 모교 강당. 019-601-1898

▲진흥고 총동창회(회장 양해인) 이사회=25일(월) 오후 7시30분 월드컵. 019-609-7779

총친회

▲전주리씨 대동총약원 광주·전남 여성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

=22일(금) 오전 11시 지원 회의실. 225-5631

▲연안차씨 증친회 광주전남지부(회장 차호철) 정기총회=23일(토) 오전 10시30분 신성식당. 232-0177

향우회

▲재광 보성을 향우회(회장 안명섭) 정기총회=25일(월) 오후 7시 미원회타운. 226-4743

▲재광 영암군 미암면 향우회(회장 김재균) 모임=25일(월) 오후 7시 화석시대. 381-8788

모임

▲재광 순천중교 테니스모임=23일(토) 오후 3시 동신고 코트. 016-652-8040

모집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30일까지. 품앗이체육관. 오전 5시30분~오후 7시30분. 011-638-

8284

▲담당장제사랑봉사회(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중증장애인에겐 봉사할 차량·후원·발발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부음

▲서민관(대한통운)씨 별세 운영씨 부친상 민수(굿모닝에프씨·KTRD·KT S&C 부사장)·정수(KT S&C 이사)씨 제씨상 민호(대한통운 팀장)·정현(굿모닝에프 과장)씨 백씨상=발인 23일(토) 목포 한국병원장제식당 특실. 061-270-5457

광주에서 30분 이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묘특별분양

분양문의 (062)521-1100